

창간 36주년 기념 본보인식도에 대한 설문조사

대학주보가 창간 36주년을 맞이하여 무엇을 위한 언론이며 누구를 위한 대학주보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독자들의 신문을 읽고자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각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2백 50명씩 무작위로 추출, 학생 5백명과 교수 및 기타 각부서의 교직원 1백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수 및 교직원들 1백명과 학생들을 분리하여 각각의 통계를 분석함과 아울러 이들을 함께 통계처리함으로써 (SPSSPC) 전체적인 응답률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학생의 경우 총 4백52명중 남학생이 3백30명, 여학생이 1백22명으로 72.7%의 남학생이 대부분이었으며 학년의 분포는 1학년(29.5%), 2학년(27.8%), 3학년(23.8%), 4학년(18.1%)으로 이루어졌다. 각 단과대 분포에 있어서는 문리대(11.5%), 법대(4.0%), 정경대(20.9%), 가정대(1.3%), 사대(4.0%), 의대(0.7%), 한의대(5.9%), 치대(0.9%), 약대(0.2%), 체대 및 체육과학대(2.0%), 음대(0.9%), 외국어대(15.6%), 사회대(18.5%), 자연대(4.8%), 공대(4.6%), 산대(3.1%)로 집계되었다. 한편 교수와 교직원들의 경우 양 캠퍼스에 50명씩 1백명을 응답자로 선정, 교수 51%와 교직원 49%로 총 61부를 회수하였다.

(편집자註)

1. 들어가는 말

한 사회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가슴을 열고 진실한 목소리로 세상을 논쟁해야 한다. 이러한 명제에 있어서 삶에 대한 교양의 구실을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언론보다도

이러한 명제속에서 지성인들이 모여있는 대학사회의 언론이라 함은 특히 기성언론과는 달리 사회에 대한 냉철한 비판을 우선시 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의 유지와 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사회의 모순을 찾아내어 건설적인 비판과 함께 보다 나은 사회로의 발전을 내딛고 있는 학내 언론들, 그 중에서 대학사회 언론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주보는 학내의 민주적인 발전과 아울러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주보가 대안이 없어 보이는 비판을 하고 있다고 나무랄 수 있으나 비판 그 자체가 대안을 안고 있는 경우도 있다.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비판은 언제나 대안의 기초가 될 것이다. 병든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크게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최선의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를 이끌어 가는 책임있는 지성인들은 어두운 시대로 사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밝은 시력으로 제자리와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할 때 본보의 독자가 곧 신문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실천에 옮기고자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2. 본보의 이용정도

“대학주보의 구독빈도에 대한 응답”에서 학생들은 ‘가끔 받아 본다’(55.7%), ‘매주 본다’(39.2%)고 하였으며 이의 소요시간은 10~30분이 가장 많은 분포를 이루었고(48.9%), 10분이하(20.7%)라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교수 및 교직원들의 경우 ‘매주 본다’(70.6%), ‘가끔 본다’(27.5%)고 응답하였으며 이의 소요시간은 10~30분(58.0%), 30~1시간(20.0%)이라 한 바 대학주보 구독자중 본보를 전혀보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관여부’에 대해 ‘버린다고 응답한 학생독자는 무려 55.7%나 되었으며 ‘집에 보관해둔다’(19.4%) ‘타대학 용으로 보내는 경우’도(9.7%)를 차지했다. 교수 및 교직원의 경우 역시 ‘버린다’(47.5%)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었으며 ‘필요한 기사만 스크랩한다’(27.9%)고 함으로써 학생들 보다는 교수 및 교직원이 더 많이 대학주보에 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관심있게 읽는 면”은 기사(61.2%), 특집면(14.8%), 학술면(6.2%)의 순으로 응답한 학생들과 같이 교수 및 교직원도 기사면(73.9%), 특집면(21.7%)을 가장 관심있게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자참여란 중 가장 많이 읽는 것”은 학생의 경우에는 말해봅시다(25.1%), 문제투고(17.6%), 알림(15.8%), 교수결정면(17.6%)으로 나타났다. 교수 및 교직원은 가보(24.4%)와 자주 접하며 말해봅시다(26.8%) 역시 많이 읽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본보에 대한 인식도

“대학주보를 읽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학생들은 ‘학내소식이 궁금해서’(72.5%), ‘사회동향에 관심이 있어서’(15.4%), ‘학술자료에 이용하기 위해’

학생기자(9.8%), 학생기자와 주간교수(29.4%), 교수(15.7%)가 집필해야 한다고 하였다.

“대학주보는 본보(本報) 또는 본교(本校)라는 한자를 쓰고 있는데 이를 ‘우리신문’ 내지는 ‘우리학교’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학생들은 ‘순우리말’(52.9%)의 사용과 아울러 ‘경희’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어 개성이 필요(29.9%)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교수 및 교직원들은 ‘현재의 본보나 본교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좋다’(41.3%) ‘순우리말’(37.0%) ‘경희공동체’식’(21.7%)을 지닐 수 있다고 한 바 일반적으로 ‘우리’라는 단어의 사용을 선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자의 사용”에 대해 학생들은 ‘의미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43.3%)고 하였으며 한편 교수 및 교직원들은 ‘국한문 혼용’(40.0%) ‘의미파악이 어려운 경우만 한자표기’(34.0%)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것이다.

4. 독자의 참여도

대학주보에 대한 독자의 참여

이루어져야 한다(7.5%)고 견해를 밝힌 학생들과는 달리 ‘학과사무실’(20.0%)을 통해 여론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교수 및 직원의 응답은 학생들에 비해 과사무실을 통한 여론수렴 과정에서도 높은 %를 나타내었다. 또한 이들은 ‘학내언론’(68.0%) ‘학생회’(12.0%)라고 응답함으로써 학생과는 매우 대조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언론을 통한 여론형성에 대한 인식은 “대학주보가 어느정도 학내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가”에 대해 ‘보통이다’(47.6%) ‘거의 수렴하지 않는다’(20.7%)고 응답한 학생들과 함께 ‘보통이다’(68.0%) ‘거의 수렴하지 않는다’(14.0%)고 응답한 교수 및 직원에 있어서도 대학주보가 대체로 학내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한편 “대학신문의 광고는 어떠한가”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학생들은 ‘학내구성원을 위한 알람 광고’(45.7%)를 중요시 여기며 ‘캠페인광고’(28.0%) ‘기업광고’(8.4%)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가장 관심있게 본 광고”는 전체 5백12명에 있어서 ‘학풍조성 광고’(68.7%)가 단연코 우세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경우 본보가 대외마다 싼고 있는 기획광고 중에서

면 교수 및 직원들의 경우 ‘정치일변도의 각종행사 진행’(53.1%) ‘학생들의 여론 수렴의 부족’(40.8%)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이는 학생운동에 대해 일정부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교수 및 직원의 답변에 일관성을 보인다.

그렇다면 이를 “대학주보가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가”에 대해 ‘학생회 활동도 명확하게 평가하고 비판해야 한다’(90.3%)는 학생과 같이 교수 및 교직원도 이 항목에 대해(90.2%) 높은 의견을 표출하였다. ‘학생회 강화라는 측면에서 다소 자제해야 한다’(4.4%)는 학생도 있었으며 교수 및 직원 역시(5.9%) 자체의 필요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자치기구이므로 비판해서는 안된다’(2.2%)라는 학생들의 견해와는 달리 교수 및 직원들이 이 항목에 응답한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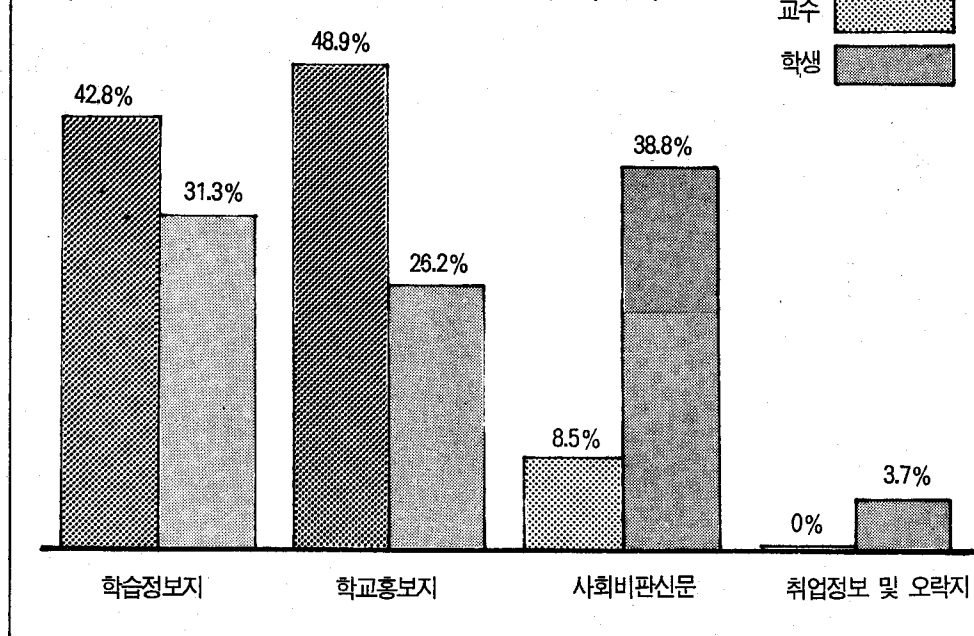
“학교 당국에 대한 보도”는 ‘학교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제시는 있어야 한다’(67.2%)는 학생들의 견해보다 이에 대한 교수 및 직원들의 견해는 더욱 높은 것(85.1%)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치부는 가려야 한다’(4.0%)고 한 학생에 비해 교수 및 직원은 이 항목(10.6%)에 대한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한편 “기자들의 취재영역”에 대해 학생들은 ‘학생들이 알아야 할 모든 사건 및 사실에 대한 자료를 해석, 보도해야 한다’(23.6%)고 하였다.

6. 대학주보에 대한 독자의 비판

“신문을 받아보는데 있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은 ‘신문이 정기적으로 매주 필요일 발행되지 않음’(26.7%) ‘신문배부상의 방법적인 문제 때문에’(20.5%)라는 학생들의 의견과 같이 ‘정기적으로

〈그림1〉 대학신문 어떤 성격이어야 하는가



적’(19.6%)을 지정한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수 및 직원에 이에 대한 견해는(37.1%) 더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학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부족한 것은 학생들에게는 ‘변혁의 주체로서 실천성을 담보하지 못한다’(30.4%)가 가장 큰 대학주보의 대외보도에 대한 비판인 반면 교수 및 교직원은 ‘사회현실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내지 못한다’(68.3%)를 최우

선으로 꼽았다.

7. 독자들의 대학주보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도

전체 경희구성원인 교수 및 교직원 그리고 학생들의(512명) “대학주보의 이용빈도”는 ‘가끔 받아 본다’(52.9%)가 대부분이었으며 “대학주보를 읽게 되는 주된 이유”는 학내소식이 궁금해서(79.9%)라고 하였다. “대학주보를 이

것에서 비롯되는 경우를 더욱 좌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학내에 있어 부족한 점의 1위로는 역시 ‘학사일정에 대한 알람부족’(26.8%) ‘학생활동에 대한 소개부족’(29.0%) ‘취업정보 및 학술행사의 홍보부족’(33.3%)이라고 하였으며 학외적인 경우 ‘사회현실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다’(55.7%) ‘변혁의 주체로서 실천성을 담보하지 못한다’(35.0%)라고 하였다.

새로운 지면의 구성에 있어서는 ‘학내뉴스에 대한 심층적 보도’(26.2%) ‘취업정보’(21.1%)를 독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들 각 단과대 대학주보의 구독정도는 문리대 및 정경대와 음대 및 체대, 체과대의 경우는 매우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학생회와 참여도’ 뿐만 아니라 본보 ‘투고’의 경험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지닌다. 즉 문리대, 정경대, 한의대의 사회대, 의대에 있어서의 그것은 음대 및 체대에 있어서의 그것보다 통계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독자의 건 수렴정도에 대한 인식도 높은 수록 기사 및 내용의 논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고 할 수 있다. (r=0.1492 P<0.001) 반면 본 설문조사는 남성이 전체의 80%정도를 차지 하였기에 남녀간의 각 설문응답에 대한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T-TEST검정결과)

8. 나오는 말

각 집단이 자기의 방법과 소리로 자신의 주장을 변호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에서의 언론은 민주적인 참여매체가 될 수 있다. 대학사회내에서의 대학주보 역시 독자들의 민주적인 참여매체로 자리해야만 할 것이다. 학내의 정확한 여론을 조사하고자 노력한 이번 설문조사는 본보에 대한 독자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개인의 의견을 빠짐없이 기입한 독자들의 사랑의 채택을 발전의 디딤돌로 삼고자 하였다.

서로의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해도 언젠가는 진실의 뿌리에서 만날 수가 있다. 그 진실의 교류를 위해서만 우리는 힘을 모아 환부의 아픔을 다스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환부의 치료가 더디더라도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의 하나됨은 기어코 확인 될 것이다. 매듭을 푸는 장정의 노고 없이 대학의 아픔과 시대의 아픔을 풀 수는 없다. 대학생의 신분을 넘어서는 행동이라는 말은 물론 어떠한 측면에서는 대학생의 신분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어 왔으나 이의 문제는 사회의 원천적인 문제로 돌려져야 한다. 굳이 학생들이 나서지 않고도 사회가 제구실을 다하며 살아 숨쉬한다면 구태여 학생들을 교정을 뛰쳐나가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아픔과 전통은 곧 사회의 아픔과 같은 것이다. 한계 한 계단을 넘어야만 단층이 우리에게 높게 보여도, 아무리 멀고 높더라도 우리가 넘어서야 할 고개임을 틀림없다.

대학주보는 명칭에 걸린 신문이 아닌 뿐 아니라 명칭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독자들의 뜻으로 사회의 발전을 이루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대학주보가 더이상 독자와 관련된 면과 넉넉으로 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대학의 구성원 모두가 사회와 학교를 주인이라는 인식을 지니는 곳에서 올바른 여론형성을 이루는 대학주보의 황금시대는 자라날 것이다.

〈여론조사부〉

독자참여, 대학신문의 맥

신문(38.8%), ‘취업정보 및 오락지’(3.7%)인 반면 교수 및 교직원들의 ‘학교동향’(48.9%), ‘학술정보’(42.6%), ‘사회비판’(8.5%)성격의 신문이어야 한다는 견해와는 상이한 의견을 지닌다. 대학신문의 위상정립에 있어 ‘사회비판적인 자치단체를 중시하는 학생과는 달리 교수 및 교직원은 아카데미즘적인 신문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학주보를 읽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14.1%), ‘읽을 만한 내용이 없어서’(12.4%)라고 한 학생과는 달리 교수 및 교직원은 ‘기사의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되므로’(27.3%), ‘읽을 만한 내용이 없으므로’(27.3%)라 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대학주보를 통해 얻는 정보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문항에 대해 학생들은 ‘보통이다’(55.5%), ‘조금밖에 얻지 못한다’(30.5%)고 하였고 교수 및 교직원은 ‘보통이다’(49.0%), ‘조금밖에 얻지 못한다’(30.0%), ‘많이 얻는다’(18.4%)고 한 바 대체로 대학주보가 정보전달의 기능을 일정정도 수행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또한 “대학주보의 편집이나 기획자의 주제선정 및 논조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보통이다’(44.7%), ‘비교적 적절하다’(34.1%), ‘적절하지 못하다’(11.5%)인 학생응답자와 같이 교수 및 교직원도 ‘보통이다’(54.2%), ‘비교적 적절하다’(29.2%), ‘적절하지 못하다’(16.6%)고 응답하였다.

“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학내소식’(73.1%), ‘사회동향’(11.9%), ‘학술연구’(4.6%)라고 의견을 제시한 학생과 마찬가지로 교수 및 직원도 ‘학내소식’(87.5%)에 있어 가장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학내뿐 아닌 학외적인 정보를 얻는데 있어서 대학주보가 “새로운 지면의 구성을 위해 새로 신설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학생들의 정보욕구를 살펴본바 ‘학생신문’(32.5%) ‘취업정보 및 기업가이드’(20.9%) ‘사회비판적인 학대’(18.4%)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반면 교수 및 교직원은 ‘학내뉴스에 대한 심층적인 보도’(38.3%) ‘학술연구’의 확대’(21.1%) ‘학내소식’(4.9%)로 응답하였다. 사회비판단론 전반적으로 교수 및 직원들은 대학주보의 사회참여에 대한 요구보다는 학술, 학교홍보로서의 신분이 될 것을 더욱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보의 사설은 누가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학생기자(9.8%), 학생기자(9.8%), 학생기자(9.8%)와 주간교수(29.4%), 교수(15.7%)가 집필해야 한다고 하였다.

“독자의 의견수렴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학내의 언론’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57.3%) ‘학생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24.0%) ‘학과 사무실’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7.5%)고 견해를 밝힌 학생들과는 달리 ‘학과사무실’(20.0%)을 통해 여론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교수 및 직원의 응답은 학생들에 비해 과사무실을 통한 여론수렴 과정에서도 높은 %를 나타내었다. 또한 이들은 ‘학내언론’(68.0%) ‘학생회’(12.0%)라고 응답함으로써 학생과는 매우 대조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언론을 통한 여론형성에 대한 인식은 “대학주보가 어느정도 학내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가”에 대해 ‘보통이다’(47.6%) ‘거의 수렴하지 않는다’(20.7%)고 응답한 학생들과 함께 ‘보통이다’(68.0%) ‘거의 수렴하지 않는다’(14.0%)고 응답한 교수 및 직원에 있어서도 대학주보가 대체로 학내여론을 수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한편 “대학신문의 광고는 어떠한가”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학생들은 ‘학내구성원을 위한 알람 광고’(45.7%)를 중요시 여기며 ‘캠페인광고’(28.0%) ‘기업광고’(8.4%)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가장 관심있게 본 광고”는 전체 5백12명에 있어서 ‘학풍조성 광고’(68.7%)가 단연코 우세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경우 본보가 대외마다 싼고 있는 기획광고 중에서

관심있게 본 광고는 ‘학풍조성 광고’(37.7%) ‘대학신문 기자연합회 공동기획광고’(21.6%)라 하기도 하였다.

5. 본보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학생운동”에 대해 ‘사회에 대한 비판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학생운동은 필요하다’(45.8%)고 하였지만 ‘과격한 시위와 지나친 이념의 강조는 삼가해야 한다’(31.5%)고 응답한 학생들의 의견은 교수 및 직원들의 경우와는 다소

었다. 한편 “기자들의 취재영역”에 대해 학생들은 ‘학생들이 알아야 할 모든 사건 및 사실에 대한 자료를 해석, 보도해야 한다’(23.6%)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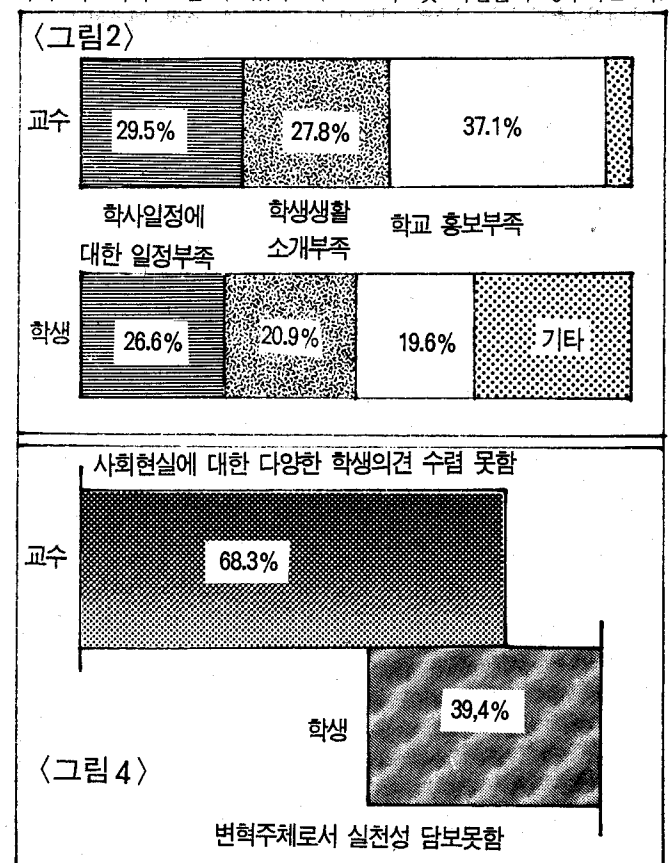
6. 대학주보에 대한 독자의 비판

“신문을 받아보는데 있어서 가장 불편했던 점”은 ‘신문이 정기적으로 매주 필요일 발행되지 않음’(26.7%) ‘신문배부상의 방법적인 문제 때문에’(20.5%)라는 학생들의 의견과 같이 ‘정기적으로

적’(19.6%)을 지정한 학생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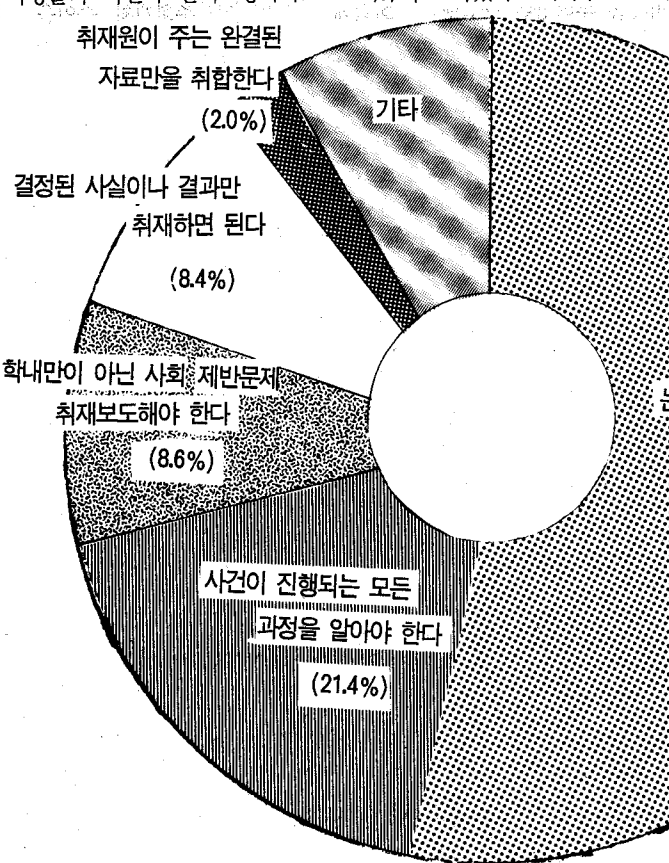
마찬가지로 교수 및 직원에 이에 대한 견해는(37.1%) 더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학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부족한 것은 학생들에게는 ‘변혁의 주체로서 실천성을 담보하지 못한다’(30.4%)가 가장 큰 대학주보의 대외보도에 대한 비판인 반면 교수 및 교직원은 ‘사회현실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내지 못한다’(68.3%)를 최우



대학주보의 보도상 문제점 (上 학내, 下 학외)

교수 본보, 학교동향(48.9%)·학술정보지(42.6%)여야 학내소식(72.5%)·사회동향(15.4%) 찾게 돼 학생



대학주보의 보도상 문제점 (上 학내, 下 학외)

교수 본보, 학교동향(48.9%)·학술정보지(42.6%)여야 학내소식(72.5%)·사회동향(15.4%) 찾게 돼 학생

로 발행되지 않음’(42.3%) 교수 및 교직원도 가장 불편했던 점으로 꼽고 있다. 이는 신문 발행이 끝 독자와의 약속이행이라는 사실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라 할 것이다.

“대학주보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독자와의 공감대 형성의 부족’(55.7%) ‘다양하지 못한 집필자 선정 및 내용’(14.1%) ‘학교발전을 위한 노력의 부족’(6.8%)이라 하였다.

학내에 있어서 신문보도상의 부족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학내소식’(25.8%) ‘사회비판적 필요성’을 느낄 경우’(18.7%)에만 참가한다고 하였으며 ‘반드시 참여한다’(15.0%)는 경우 역시 학생운동에 대한 필요성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으나 이의 실천성을 담보하는데 있어서는 저조한 통계치를 보였다.

“총학생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학생들은 ‘학생들의 여론수렴 부족’(37.7%) ‘정치일변도의 각종 행사’(28.6%) ‘학생부지에 대한 관심의 부족’(19.2%)이라 한 바

용하지 않는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31.4%) 라고 응답한바 ‘읽고 난 후 버린다’(57.6%)라는 높은 통계치는 학교에 대한 자부심의 부족 및 대학주보의 정보내용의 문제점에 기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주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학내소식’(79.6%)이라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 사례의 분포를 나타냈으며 ‘지면 선선포’에 있어서는 기사면(66.8%)을 제일 많이 읽는다고 하였다. “대학주보의 고정면 중에서 가장 많이 읽는 것”은 취재노트와 만화, 만평이 각각 30.8%로 1위를 차지했으며 독자참여란의 경우 말해봅시다(30.1%)가 독자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자의 의견수렴 과정은 ‘학내 언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60.4%)하였으며 대학주보의 의견수렴 정도에 대한 인

한편 대학신문의 광고는 ‘학내구성원을 위한 알람광고’(41.1%)를 가장 필요로 하는 반면 ‘기업광고’(9.5%)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었다. 또한 관심있게 본본보의 기획광고로는 ‘학풍조성 광고’(50.9%)를 가장 좋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당국의 문제는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학교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제시는 있어야 한다’(68.3%)는 주장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학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치부는 가려야 한다’(4.7%)고 함으로써 대학주보의 비판적인 기능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주보가 더욱 전문적인 ‘독자와의 공감대 형성의 미흡’(81.7%)으로 이는 본보에 투고한 경험을 지니는 독자가 전문한 이유도 있었으며 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주인의식의

대학주보는 명칭에 걸린 신문이 아닌 뿐 아니라 명칭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독자들의 뜻으로 사회의 발전을 이루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대학주보가 더이상 독자와 관련된 면과 넉넉으로 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대학의 구성원 모두가 사회와 학교를 주인이라는 인식을 지니는 곳에서 올바른 여론형성을 이루는 대학주보의 황금시대는 자라날 것이다.